
개화기 한국의 번역물이 국어에 미친 영향 —외국인 선교사들이 본 한국의 근대어

황호덕 ·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개화기 번역의 세 국면—문화 내 번역, 이질 언어 간 수용 번역 및 전파 번역

번역이 한국 어문과 한국 사상에 미친 영향의 문제는 오늘날 가장 중요한 국어(국문)학의 논제, 나아가 인문학 전체의 의제가 되어 있다. 또한 문화 간 접변이 가장 급속했을 뿐더러 그에 대한 적응 내지 응전 역시 가장 치열하게 전개된 때가 개화기 혹은 근대 계몽기라 불리는 시기라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줄 안다. 따라서 서구의 충격, 개화기, 한국어라는 세 국면을 함께 생각할 때 역시 ‘번역’이라는 문제가 이 삼자를 매개하는 현상 혹은 실천으로 전제되는 것은 극히 당연하다 하겠다. 한 언어의 계통 발생을 강조하는 일국 어문학사적 관점이, 이 언어를 둘러싼 횡적 접변(接變)을 아우르는 문화번역사적 관점에 의해 도전받고 또 조정되고 있는 것이 최근 학계 전체의 한 동향이자 부인할 수 없는 역사의 한 국면이 아닐까 한다. 실상, 번역의 중요성은 김대준이나 임화와 같은 초기 문학사가들도 강조하였고, 서재필이나 윤치호와 같이 성경 번역을 현대 한국어의 기점으로까지 소급하는 생각들

도 없지 않았다.

번역과 근현대 한국어의 변화라는 문제를 생각하는 데 있어 우리가 흔히 전제하는 관점은, 서구어나 일본어로부터 한국어로의 번역 혹은 중역(重譯)의 문제이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더라도 그 양상이 그리 단순한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서구나 메이지 일본 혹은 근대 중국 원천의 문학이나 사상을 번역할 수 있는 도착어 혹은 목표어라 할 한국어가 고급 문어 혹은 높은 추상 수준을 갖는 ‘글말’로서 장기간 경영되어 왔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른바 번역이 전제하는 ‘등가성’이라는 원리 하에서, 번역해야 할 ‘한국어’는 재발견되어야 할 것이라기보다는 창출되어야 할 대상이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할 때 이 창출 과정은 대략 세 가지 방향에서 전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이를 각각 언해 전통의 창신 혹은 재발견으로서의 ‘문화 내 번역’, 고유어 화자에 의해 주도된 목표 언어 중심의 이질 언어/텍스트에 대한 ‘수용 번역’, 주로 서양인 선교사나 외교관 혹은 식민자 그룹인 일본인에 의해 이루어진 원천언어/텍스트 중심의 ‘전파 번역’으로 대별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문화 내적 번역, 이를테면 신성한 묵어에서 속어 준용으로의 이행으로도 요약될 수 있을 이 방향의 실천은 한문 텍스트를 한글이나 국한문체로 번역한 사례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아울러 수용 번역의 경우는 서구어나 일본어를 해독한 한국인 저자들의 번역을 뜻하며, 개화기 이후에 새롭게 강조된 ‘문명화’의 동선을 염두에 둔 분류라 하겠다.

특히 이 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간 간과되어 온 전파 번역의 경우이다. 주로 선교사 및 식민자 그룹에 의한 번역 작업을 염두에 둔 것으로, 외국인 화자가 한국어를 익혀 자신이 속한 문화로부터 생산된 텍스트를 한국어로 옮긴 사례를 가리킨다. 외국인들에 의해 번역된 성서나 교리서의 한국어역, 서양 문학이나 사상의 번역은 한국 근대 번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국면 중 하나이다. 《성서》, 《천로

역정》과 같은 종교물뿐 아니라, 서양의 주요 고전들의 번역 역시 비록 발췌해서 요약한 형태대기기는 하나 이들에 의해 먼저 이루어졌다.

이 글에서는 ‘전과 번역’의 사례를 염두에 두면서, 이 입장에 비친 ‘문화 내 번역’ 및 ‘수용 번역’의 실태를 소위 어휘사 및 개념사적 수준에서 환기시키고자 한다. 특히 외국인 선교사들의 번역 작업과 이들이 파악한 개화기를 위시한 한국어의 급변 과정이 이 글의 논제가 될 것이다. 이들이 한국어의 입말이나 민중들의 일반 수준을 우선하여 초기 번역사에 개입했던 까닭에, 1895년 이래의 근대 계몽기의 공론장에서 발생한 한국어의 변화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이고 정확한 논평을 할 수 있었다고 본다. 요컨대 전과 번역의 수행자들은 번역의 실천가이자 비평가라는 독특한 지위를 갖는다.

일찍이 자산 안확은 “세종 이래 박성원, 최세진 등의 학자가 나와 조선어 연구를 시도하였다 하나, 이는 모두 외국어를 번역함에 대조할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현대 수만의 외래어를 일절 폐지하고 고대어를 사용하자.”라는 주장을 곡론불합리설(曲論不合理說)이라 일축한 바 있다.¹⁾ 안확의 지적은 애초부터 일국 국어에 대한 연구가 ‘번역적 관점’ 없이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 또 일국의 국어가 번역이나 언어 이입에 의한 일종의 ‘오염’이나 ‘확장’ 없이는 언어적 갱신에 이를 수 없음을 갈파했다는 점에서 하나의 탁견이었다. 그런 안확이 영국인 애스턴(Aston)과 스콧(Scott), 지볼트(Siebold), 프랑스 신부 달레(Dallet), 선교사 언더우드(Underwood)와 게일(Gale)의 조선어 사전 및 문법서 편찬을 당대 조선어 연구의 대표격으로 지적하며, 조선어의 가치와 이에 대한 연구를 주창하고 있음은 의미심장하다. 본연적이라 믿어지는 한국어에 대한 감각을 유지한 상태에서 근현대 한국어의 새로운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을 서양인들, 특히 선교사 그룹의 독특한 관점을 통해 개

1) 안확(1915. 2), 조선어의 가치, 《학지광》 제4호, 권오성·이태진·최원식 편(1994), 《自山安廓國學論著集》 5, 여강출판사, 10~11쪽.

화기의 번역과 한국어의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다.

2. 문화 내 번역, 언해 전통의 뭇은 얼마나 되는가

문화 내 번역이란 무엇인가. 이미 《서유견문》의 저자 유길준이 그의 저서 서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 칠서언해(七書諺解)의 전통이 그것이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칠서언해의 법을 대략 모방하여(我邦七書諺解의 法을 大略 倣則하야, 〈서유견문 서〉)” 만들어 내었다는 국한문체는 두 가지 의미에서 번역이다. 첫째 칠서언해라는 한문 경서의 번역 문체를 모방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며, 그 모방을 유도한 원천이 후쿠자와 유키치의 《서양사정(西洋事情)》을 비롯한 당대 일본의 문체였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이에 대해 한국어 성서 완간까지 번역 사업에 종사했던 제임스 게일은 한국어는 “서적 언어의 문장 순서에 있어, 서적 형태의 언어는 구어와 유사하지만 훨씬 많은 한자어 형태가 섞여 있고 어조사 혹은 수식어에 의해 방해를 받는다.”²⁾고 썼다. 이 말이 함의하는 바는 조선의 고급 문어가 처음부터 한문에 의한 간섭, 즉 ‘문화 내적 번역’에 의해 틀지어졌음을 암시한다. 여기에 에도 시대의 한문 번역 문체[書き下し]에서 기인한 메이지 일본어의 아속혼합문(雅俗混合文)이 절합된 셈이다. 요컨대 일본어 표현을 한글로 대체하는 일종의 코드 스위칭(code-switching)식의 번역이 유행함으로써 한국 근대어, 특히 교술적인 담론들의 문체가 언해 전통을 역사적 근거로 삼은 번역투로 낙착되어 갔던 것이다.

일찍이 매천 황현은 이러한 현상을 “갑오경장 이후로 시무에 임하는 사람들은 ‘諺文’을 ‘國文’으로 칭하고, ‘眞書’는 그 밖으로 말하여 ‘漢文’

2) J. S. Gale(1897), “Preface to the First Edition”, 《韓英字典한영조판(A Korean-English Dictionary)》, The Fukuin Printing CO., L.T. Yokohama.

이라 하였다. 이에 ‘國漢文’ 3자가 마침내 方言으로 되면서 ‘眞諺’이란 명칭은 사라지고 말았다(《매천야록》).”³⁾라고 평가한 바 있다. 당시의 한문 식자층 사이에서도 국한문체를 언해 전통으로 보기보다 “일본 문법을 본받은 것”으로 보는 관점이 우세했음이 얼마간 짐작된다.

전통이라는 것이 대개 재발견되거나 창조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 있거니와, 유길준의 《노동야학독본》과 이인직의 《혈의 누》에서 뽑은 아래의 두 사례만 보더라도 언해 전통의 상속보다는 일본어식 훈독(訓讀)이나 부속철자[振り仮名]가 당시의 한국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새갸갸 바지 물고기 종류 다그 도화 사람 호을 북 신령 성흙
禽獸과虫며魚의種類가皆其造化이여날人이獨로사람되는福을어더靈性이잇신즉
어디질갑지아니하리오⁴⁾

일청전쟁 평양일경 청인 군사
日淸戰爭 총소리난 平壤一境이 떠는가는 듯하더니 그 총소리가 굿치미 淸人の 敗호 軍士는
추풍 낙엽 그러면 무슨까닭의 세상 한가지일 죽기
秋風에 落葉갓치 훑터지고……(중략)…… 然則 何故로 世上에 사라잇는고 一事를 기다리고 死
를 참고 잇섯더라⁵⁾

번역에 의한 한국어의 변화는 문장 수준에서 나아가, 어휘들의 성격과 총량 그 자체를 바꾸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이를테면 유길준은 《서유견문》의 ‘정부의 치제(治制)’ 관련 장에서 서양 정치의 중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적어 나간다.

3) 甲午後趨時務者盛推諺文曰國文 別眞書以外之曰漢文 於是國漢文三字遂成方言 而眞諺之稱泯焉 其狂佻者倡漢文當廢之論 然勢格而止 黃玿, 《梅泉野錄》, 卷之二 중에서(《매천야록》, 김준 옮김, 교문사, 1994, 한문본:89쪽).

4) 유길준, 《노동야학독본》, 제7과, 《유길준전서Ⅱ》, 275쪽.

5) 이인직, 《혈의 누》, 권영민 교열·해제, 서울대학교출판부, 171면, 189쪽.

第一條 自由任意 自由任意는結斷코國法을不畏호야放蕩自恣호는意아니니其國에居호야何事를 行호든지 國法에不背호는時호는其所好를任從호는趣意라

第二條 宗教信服

此는各人이 其信服호는宗旨를崇奉호기許호고政府가是를勿關호야 民間의軌轢호는紛爭을宰制호미라

第三條 技術과文學을勵호야新物의發造호는路를開호

此는富國호는大道와利民호는妙理니新造物의專賣權을許施호는種類라

第四條 學校를建호야人民을教育호

此는人民의知識을廣博호며才藝를高明히호고工業을奮發호게호는事라⁶⁾

위에 등장하는 정부, 자유, 임의, 종교, 분쟁, 기술, 문학, 전매권, 학교, 인민, 교육, 지식, 공업 등등의 용어가 번역어이거나 새롭게 근대적 맥락에서 재정의된 용어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갑오경장 후의 담론장의 폭발적 증가는 이러한 신어 혹은 번역어를 다대하게 유포시켰다. 이러한 새로운 학술어들을 영한사전의 형태로 정리했던 선교사 존스(G. H. Jones)는 이러한 번역 환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도처에 학교들이 설립되고 있으며, 현대적 사상의 다양한 전문 용어에 해당하는 등가어를 문의하는 교사와 학생들이 늘어났다. 나의 작업은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첫 걸음을 내디디려는 시도이다. 등가어를 제시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에서 쓰이는 용어들을 자유로이 이용하였으며, 거기서 쓰인 용어가 한국 학자도 이해할 수 있는 경우 그 용어를 사용하였다. 중국과 일본에서 수행된 작업들은 한국에서의 작업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지금 한국은 이웃 나라들이 맺은 학술적 결실들을 향유할 수 있게 된 셈이다.”⁷⁾

존스는 총독부에 의해 주도된 제도 개편과 그에 따른 새로운 용어의 증가, 교육, 새로운 신문·잡지 매체 등이 중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언어의 유입을 격증시켰고, 그 근본 원인이 중국과 일본의 번역 작업에 있

6) 유길준(2000), 西遊見聞 序, 《西遊見聞(影印本)》, 이한섭 편, 도서출판 박이정, 발췌 인용.

7) G. H. Jones(1914), “Preface”, 《英韓字典영한조던(An English-Korean dictionary)》, Tokyo, Japan: Kyo Bun Kwan.

음을 간파하고 있었다. 문명 사무와 전통을 아우르는 새로운 문체인 국한문체가 주도적 문체이자 번역 문체로 자리 잡자, 중국과 일본을 경유해 들어온 많은 번역 개념들과 사상, 문학이 한국어 그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선교사들이 한국어를 정리하며, 전운옥편 등 기왕의 한문-한글 대역어 목록들을 참조해 어휘 조사를 행했고 그로부터 뜻과 철자를 확정해갔다는 점이다.⁸⁾ 한문과 한글의 대응 체계 자체를 소위 ‘언해’의 범주라 이해한다면, 언해 전통이란 게 발명된 것만은 아니었던 셈이다.

3. 언어 간 번역의 출현과 수용 번역: 한문맥과 구문맥의 절합

개화기는 한자 문명권 즉 문화 내 번역으로서의 지역화(localization)의 전략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이질 언어 간 번역, 문화 간 번역이 본격화된 시기이다. 근대 문명 사무를 담당하는 근대어, 근대 문체가 새롭게 모색되었다. 기존의 한문맥(漢文脈)과 서구어의 문맥[歐文脈]이 절합된 시기로, 전통 담론과 근대화 담론이 착종되면서 그 변화가 언어에 까지 미쳤다.

언어 간 번역, 특히 수용 번역은 전과 번역과 달리 소위 고유어(the vernacular)의 활성화나 외래어의 강화로 나타나지 않았다. 늘어난 어휘들은 오히려 한자어였으며, 이에 따라 문어의 번역어화 혹은 번역투의 일반화가 현저해졌다. 즉 서양의 충격과 서양 문명의 수용이 한자어와 국한문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주요 분과 학문의 명칭들이나 지금은 일반화되어 있는 주요 개념들을 통해 그 변화의 추이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자.

8) H. G. Underwood(1890), "Preface", 《韓英字典한영조전(A Concis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The Fukuin Printing CO., L.T. Yokohama.

이 장에서는 1890년부터 1925년까지 발행된 총 5종의 영한사전에서 추출한 총 637개의 공통 표제어 중 11개의 영어 표제어와 이에 대한 한국어 풀이를 대상으로 한국어의 변화 추이에 대한 대체적인 짐작을 얻어 보려 한다. 일반적인 사전의 특징상, 표제어나 풀이항에는 각 시기별 어휘의 대표성이나 문헌의 대표성이 비교적 객관적인 형태로 반영되어 있으리라 믿고 싶다.

영어 표제어	언더우드 (Underwood) (1890)	스콧 (Scott) (1892)	존스(Jones) (1914)	게일(Gale) (1924)	언더우드(Underwood) (1925)
Civilization	n. 교화	교화, 조화, 덕화	n. 교화(敎化): 문 명(文明): 기화(開 化)	기화開化문 명文明	n. 교화(敎化), 기도(開導) (2) 문명(文明), 기화(開化), 기명 (開明)
Science	n. 학, 학문	학, 격물궁리, 직조	n. 과학(科學): 학술(學術): (knowledge) 학문 (學問): 지식(知識): (in compounds) 학(學)	리과理科학 술學術	n. (1) 과학(科學), 학술(學術), 학(學). (2) 학문(學問), 지식 (智識).
Individual	n. 위, 손, 하나	놈	n. 일기인(一個人): (single)단독(單獨): 기인(個人)	기인箇人	n. (1) 하나, 단(單), 단독(單獨), 일기인(一個人), 기인의(個人), 각각의(各各). (2) 기인덕(個人 的), 고유의(固有).
Music	n. 풍류, 노래	풍류, 풍악	n. 음악(音樂): (notes)곡도(曲調): 음률(音律): (score)악보(樂譜)	음악音樂	n. 풍류 (風流), 음악 (音樂).
Philosophy	n. 학, 학문, 리	격물궁리	n. 철학(哲學)	철학哲學	n. 철학 (哲學), 철리 (哲理), 원리 (原理), 리론 (理論), 학 (學).

영어 표제어	언더우드 (Underwood) (1890)	스콧 (Scott) (1892)	존스(Jones) (1914)	게일(Gale) (1924)	언더우드(Underwood) (1925)
Position	n. 터, 곳, 자리, 품, 등분	터, 자리, 디위	n. (place) 곳(處); 자리(座); (situation) 위치 (位置); (circumstances) 디위(地位); (rank) 신분(身分); (employment) 과 (業); 일자리(雇業)	디위地位처 디處地	n. (1) 위치 (位置), 잇는곳. (2) 진디 (陣地). (3) 디위 (地 位), 직임 (職任), 직분 (職分). (4) 분한 (分限), 경우 (境遇), 처디 (處地). (5) 상티 (狀態), 즈세 (姿勢), 티도 (態度), 향 빅 (向背). (6) 립론 (立論), 출론 (出論). -, v.t. 두다, 위치 를 덩하다 (位置).
Progress	v.t. 압호로가오, 더가오, 나이가오	낫다, 자르가다, 느러가다	n. 진보(進步); (in skill) 전진(前 進); (in civilization) 기진 (開進); (advance or decline) 성쇠 (盛衰)	진행進行진 보進歩향상 向上발달發 達	v.t. (1) 나아가다, 전진하다(前 進), 진행하다(進行). (2) 진보 하다(進步), 천선하다(遷善), 향상하다(向上). -, n. (1) 나아 감, 전진함(前進). (2) 진보됨 (進歩), 향상됨(向上), 경과(經 過)(병의), 진도(進度)(과학 科 學의), 성쇠(盛衰), 소장(消長) (국운의 國運).
Public	to be, 공변되오, 무인부지호오, 량자호오	빅성	a. (not private) 공변(公便); (pertaining to the state) 국가덕(國 家的); (state-owned) 관 유(官有); (concerning the public) 공사의(公 事上); 공중상(公 衆上)	묘령妙齡성 년成年	a. 공의(公), 공립의(公立), 공기의(公開), 공공덕(公共的), 공중덕(公衆的), 나타난, 드러난.
Right	to be, 옳소, 가호오, 가룩호오, 그르지안소	(correct) 올타	a. 옳흔(公平); (correct) 바른(正 當); (just) 공정 흔(公正); 정직흔 (正直); (opp. of left) 우편(右便); (suitable) 덕당흔 (適當)	도리道理권 리權利	a. (1) 옳흔, 가흔(可), 정당흔 (正當), 당연흔(當然). (2) 가룩 흔, 그르지안이흔. (3) 바른, 옳 흔, 우편의(右便). (4) 거죽의, 것희. (5) 직추(直推)(과학의). -, n. (1) 옳흔것, 정의(正義), 도리(道理), 공도(公道), 공의 (公義). (2) 권리(權利), 권(權), 전권(專權). (3) 옳흔편, 우편 (右便). (4) 거죽, 것.

영어 표제어	언더우드 (Underwood) (1890)	스콧 (Scott) (1892)	존스(Jones) (1914)	게일(Gale) (1924)	언더우드(Underwood) (1925)
Sovereign	n. 임금, 님군, 황, 왕	나라님, 님군, 상감	n. 군주(君主): 주권자(主權者)	원수元帥군 주君主	n. (1)님군, 임금, 군주(君主), 주권자(主權者), 황(皇), 왕(王), (2)영국의돈일홍(英國錢之名稱), -, a. (1)주권가진(主權), 지존훈(至尊), 최고훈(最高), 독립훈(獨立), 주주훈(自主). (2)테일가논(第一), 최상의(最上).
Speech	n. 말, 말씀	말	n. 말씀(言): 방언 (方言): (formal address) 연설(演 說): 강설(講說): (power of) 설화 적(력의 오기?)(說 話力)	언론言論 (freedom of)언론자유 言論自由	n. (1)말, 담화(談話), 말씀, 언 론(言論). (2)연설(演說), 강연 (講演). (3)어조(語調), 어투 (語套), 방언(方言), 언(諺).

필자와 연구팀은 총 5종에 이르는 영한이중어사전을 대상으로 약 19,748개에 이르는 영어 표제항과 그 한글 풀이들을 전수 입력하여, 총 627개의 공통 표제어를 얻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어의 문어화 과정에서 한자의 개입이 지속적으로 기증되어 왔고 여기에 번역이나 번역적 근대 담론이 큰 역할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⁹⁾ 그 중 일부가 위 표이다.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는바, 고유어에서 한자어로의 어휘의 이동 및 확대라는 현상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이를 매개한 것이 소위 번역, 나아가 번역적 근대라 통칭될 수 있는 ‘문명화 과정’이었을 터이다. 예를 들어 ‘individual’에 대응되어 있는 ‘하나, 놈’과 같은 고유어 표현이 ‘개인, 단독, 개인적’과 같은 표현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자리 잡은 시기가 바로 갑오경장을 기점으로 한 소위 개화기/근대 계몽기였다. 근대를 상징하는 ‘Progress’라는 단어에 대응된 한국어 표현만 보더라도 상황은

9) 여기에 대해서는 황호덕·이상현(2011), 번역과 정통성, 제국의 언어들과 근대 한국어, 《아세아연구》통권 145호.) 근대 한국의 이중어 사전에 대한 종합적 연구가 단행본과 번역서, 영인본의 형태로 근간될 예정이다.

명백해 보인다. ‘앞으로 가오, 더 가오, 나아가오’와 같은 풀이는 방향과 운동에 관련된 중립 표현에 가깝다. 또한 이어지는 시기에 이 영어 단어는 ‘낫다, 자라가다, 들어가다’와 같이 비교적 긍정적 고유어 표현을 얻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 표현의 귀착점이다. “진보, 전진, 개진, 발달, 향상”과 같은 한자어 풀이는 필시 한문맥과 구문맥이 결합한 결과이자 진보의 이데올로기의 반영이었을 터이다. 보다 극단적인 사례가 ‘Speech’의 번역어들이다. ‘말, 말씀’ 같은 표현이 ‘담화, 언론, 연설, 강연, 방언’ 등으로 옮겨 가는 과정은 한국말의 역사 그 자체를 반영하는 한편, 번역투에 의한 한국어의 석권을 예감하게 한다.

비록 그 번역이 한국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을 통해 이루어지고 수입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들 단어가 한국어에 안착된 데에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본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일본 세력 및 그 지지자들이 정치적 실권을 잡으면서 진행된 각종 ‘개혁’과 교육 제도 개편을 그 한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대 제도 및 관련 개념의 유입이 일어났다. 일본 유학이나 일본 문헌의 증대로 인해 일본에서 직수입된 번역어나 중국을 경유한 번역어들이 대규모로 유입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제임스 게일의 한영자전 편찬 과정이 참고가 된다. 게일은 당대 신문·잡지로부터 어휘를 채집했으며, 고전 번역 과정에서도 적잖은 어휘들을 얻었다. 그러나 후기로 갈수록 이보다는 일본에서 나온 사전을 직접 참조하는 방법으로 기울어졌다. 왜냐하면 일본제 한자어들이 이미 한국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었을 뿐더러, 언중들의 지지 또한 얻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일이 쓴 《한영자전》 제3판 서문에는 일본인이 만든 여러 사전을 두루 참고해서 어휘 수가 증대되었음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¹⁰⁾ “이노우에의 위대한 업적”, 조선총독부의 《조선어사전》, 최근 출판물 등으로부터 35,000개

10) J. S. Gale(1931), “Preface to the third edition”, 《韓英大字典: The Unabridged Korean-English Dictionary》, 京城: 朝鮮耶蘇敎書會.

의 새로운 어휘를 추가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노우에는 이노우에 주키치(井上十吉)의 영일사전일 가능성이 크다.)

언더우드 부부 역시 전통적 고유어로부터 개화기 언어 변화, 나아가 1920년대 담론까지를 포괄한 그의 마지막 사전에서 “《오사카매일신문》의 영어 신어 5000목록에서 참조한 단어 몇 백 개가 추가되었음”을 밝히고 있으며, “이처럼 단어를 추가한 것 이외에도, …… 《산세이도 사전(三省堂辭典)》의 훌륭한 정의도 가능한 한 많이 이용했으며, 한문으로 된 정의의 대부분은 《산세이도 사전》과 《중국 상업 사전》에서 따 왔다.”¹¹⁾라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일본이나 중국에서 발간된 사전으로 영어 단어를 풀이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 중국의 번역어에 의해 근현대 한국어가 큰 영향을 받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 선교사들의 사전과 어휘 목록이 차후 한국인들의 언어 정리 사업에 적잖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물론 선교사들이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긍정한 것은 아니었다. 제임스 게일은 이러한 번역 상황을 이렇게 요약했다. “오래된 것은 사라졌고, 새로운 것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일본적 관념들, 서구적 관념들, 신세계의 사상들이 그 존재가 명확히 정의되지도 못한 채, 마치 무선전신들과 같이 허공중에서 서로 충돌하고 있다.”¹²⁾ 한국의 근대 문명이란 그에게 미궁과도 같은 것이었다.

오늘날, 동경제국대학의 졸업생들은 그들의 선조가 남긴 것들, 그러니까 문학적 업적과 같은 특별한 유산들을 읽을 수 없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조선의 문학적 과거, 한 위대하고 놀라운 과거는 이러한 대격변에 의해, 오늘의 세대에게 사소한 흔적조

11) H. H. Underwood(1925), “Preface”, 《英鮮字典(An English-Korean Dictionary)》, 京城: 朝鮮耶蘇敎書會.

12) J. S. Gale(1923), “Korean Literature”, The Christian Movement in Japan, Korea, and Formosa. Kobe, 468쪽.

차 남기지 못한 채 어디론가 파묻히고 말았다. 물론 오늘의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사실에 더없이 무지하며, 이런 상실 속에서도 극히 행복해 한다. 그들은 그들 세대의 잡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철학 논문들에서 배운 지식으로 온갖 확신에 가득차 칸트와 쇼펜하우어에 대해 쓴다.¹³⁾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돌이키기란 불가능했다. 게일이 《조선문학》(1923)의 결론에서 쓰고 있는 바 “어쨌든 새로운 것은 도래할 것”이었고, 필요한 것은 그것이 자연스럽고 또 격조 있는 것이 되기 위한 시간이었다. 깊어야 어떠한지, 칸트와 쇼펜하우어의 용어와 제국대학발(發) 문체가 동양의 고전이나 한문, 또 미성숙 상태의 고유어를 대체·갱신하고 있었던 까닭이다. 《영한사전》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이중어사전이나 영일사전 등을 참조하며 실제 번역을 해 나갔을 한국의 번역가들을 생각한다면, 근현대의 한국어 자체가 근원적으로 어휘적 수준의 중역(重譯)에 의해 커다란 곤란을 겪었음은 족히 짐작이 가능하다. 한국의 번역물이 국어에 미친 영향은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나 중국)의 번역물이 국어에 끼친 영향과 따로 떼어 생각하기 어렵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근대어는 일종의 ‘중역한 근대’¹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다. 성경 번역을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고, 또 이를 위한 사전과 문법서를 편찬하고 나아가 한국 문화를 연구하고 번역했던 외국인 선교사들의 고민과 그 해결 방향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13) 위의 책, 465쪽.

14) 이 용어는 조재룡이 다음 논문에서 애써 강조한 용어이다. 조재룡(2011), 중역(重譯)의 인식론: 그 모든 중역들의 중역과 근대 한국어, 《아세아연구》 통권 145호.

4. 현대 한국어와 중역, 끝나지 않은 개화기—하나의 제언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를 번역한 “天ハ自ラ助クルモノヲ助く”라는 문장을 “天은 自助하는 자를 助한다.”라고 번역¹⁵⁾하는 일을 통해 형성된 한국어에 있어, 고유어의 회복이라는 문제, 번역투의 극복이라는 문제, 한국어다운 번역이라는 문제는 쉽지 않은 난제에 속한다. 이를테면 중역(重譯) 역시 필요의 산물이고, 이 필요란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창조와 관련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 까닭이다. 쓰보우치 쇼요(坪内逍遙)가 번역한 셰익스피어로 영문학을 배우고 원서는 다루지조차 않던 장소¹⁶⁾에서 그러한 책들을 일본어로부터나마 번역한다는 것의 의미는 ‘중역’이라는 말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 된다.

해방기의 영문학자 김동석은 “러시아어를 모르면서도 예세-닌에 대하여 생리적인 공감을 느끼고 역(譯)까지 하였다는 것은 장환(오장환: 인용자) 또한 예세-닌과 꼭 같은 혁명기의 시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필요가 실천을 낳고 실천이 현실을 만든다. 김동석은 이렇게 쓰고 있다. “시란 한 번 번역해도 그 생명의 절반을 잃어버리는 것이어 늘 중역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이 시집을 장환이 예세-닌에 의탁하여 시방 조선의 시대와 시인을 읊은 것이라 보면 많은 독자에게 크나큰 공명을 일으킬 것이다.”¹⁷⁾ 어쩌면 한국어와 한국 사상을 압도해 버린 개화기의 상황이나, (후기) 식민지의 급박한 현실이 잉태한 번역 및 번역 문체의 주류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번역은 중역이나

15) 새뮤얼 스마일스(Samuel Smiles)의 ‘Self-Help’를 번역한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의 《西國立志編》(1871)을 번역한 홍영후의 《青年立志編》(博聞書館, 1925)의 제1장 제1절의 번역.

16) 이화여전 영문학의 사정에 대한 김갑순의 회고를 참조. 최영 외 대담(1997), 한국영문학의 어제와 오늘3: 김갑순 선생을 찾아서, 《안과밖》 제4호, 영미문학연구회, 창작과비평사.

17) 金東錫(1947), 詩와 革命-오장환 譯『예세닌 시집』을 읽고, 《藝術과 生活》, 博文出版社, 《김동석평론집》(1989), 서음출판사, 183쪽.

언어 이입이라는 현상에 그쳤던 사정은 그 나름의 역사적 한계이지 누구의 탓이라 이야기하기 어렵다.

중역은 또 다른 원텍스트를 불러들인다는 점에서 일종의 ‘모자란 번역’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충실한 번역’은 원리상으로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원리상 중역 자체도 언어 간 번역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며 보다 많은 언어들 사이에서 ‘언어’를 구하고 있는 것임에 분명한 까닭이다. 중역 역시 일본어나 중국어와 한국어 사이의 번역이다. 서양의 선교사들이 이러한 언어 이입을 비판적으로 묘사하면서도 한일·한중 양 언어 간 번역의 주도성을 적극적으로 전유했던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애초에 번역이라는 말의 어원에는 ‘지식과 제국의 이동’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다. 제국의 이동(translation)은 식민자가 지배권을 갖는다는 개념으로 역사적 사상이나 이상을 넘어서는, 식민화가 진행되는 과정의 사소한 부분에까지 거대한 우주적 일관성을 부여해준다¹⁸⁾. 우리들의 한국어, 이 우주는 어떤 이동의 산물인데, 흥미로운 것은 이 이동이 앞서 말한 바, 중국 중심의 천하 질서의 장기 지속 속에서 일어난 문화 내 번역, 외국인들에 의한 전파 번역, 한국인 중심의 수용 번역의 세 갈래 길을 따라 일어났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해방 후 일본이 물러가고 미국이 들어오던 국면의 한국어는 어땠을까. 좀 더 좁혀 말해 새로운 국어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번역 도구였을 이중어사전은 어땠을까. 여기 하나의 증언이 있다.

미군정하에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서양문화를 계승해서 뭘 알아야 독립국가 행세를 하지, 안 그러면 또 일본의 속국이 되기 쉽다. 뭘 해야 되겠나니까 뭐 별 큰 얘기는 없지 않느냐, 우리들은 나이 많은 사람도 많고 더 공부할 기회도 없는 사람들인데……그러면 무슨 일

18) 더글러스 로빈슨(2002), 《번역과 제국》, 정혜옥 옮김, 동문선, 87~89쪽.

을 어떻게 하느냐는 물음에 한 여남은 명 모두가 사전이 있어야겠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더라. …(중략)…이양하는 직장이나 가족도 없이 최정우 집에 하숙을 하고 있어서 항상 둘이 같이 다니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았지만, 그 뒤에 그 둘이 사전을 만들려고 시작을 했단다. ‘ABC’까지는 되어 있었다. 나하고 합작을 한 것은 6·25 직전쯤인데 ‘ABC’는 되어 있으니까 나더러 ‘DEF’를 하라는 거야. 일본사전을 베끼는 거지. 우리가 어찌 금방 사전을 만드나. 이치가와(市川三喜) 선생이 만든 ‘포켓용 리틀 디셔너리’를 베껴서 가기로 했지. 그걸 하다가 이양하는 미국에 갔지. 내가 마무리를 하기는 했다만. 그건 거의 비슷하게 번역을 했는데 말이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란 말야. 일본시대 때는 한국말을 못 썼으니 영어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말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한자는 그냥 쓰기로 했지. 가령 ‘school’이면 ‘學校’라고 한자로 써 놓고 그것을 우리말로 ‘학교’라고 썼지. 그러니까 ‘school’에 대해 같은 한자를 쓰고 일본말과 우리말은 서로 달리 읽는 셈이지. ‘철학’이라면 일본말로는 ‘데쓰가쿠’지만 우리말로는 ‘철학’이란 말야. 한자는 안 쓰고 한자음을 가지고 우리말이라 하고 일본말은 일본 사람이 쓰던 한자를 그냥 쓰는 거지.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다. 안 그러면 몇십 년을 기다려 우리말이 생겨날지 알 수가 없는데 어찌 하나. 일본 사람들이 그 뒤에 말하는 걸 들으니, 서양 사람들 말을 번역하는 데 수십 년이 걸렸는데 그것을 배워서 한국 사람들은 절약이 되었다는 거야. 그것은 사실이야.¹⁹⁾

그렇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았다.²⁰⁾ 첫 번째, plain water를 ‘순수한 물/답수’로 번역하고 ‘맹물’을 등재하지 않는 경우와 같이,

19) 이상옥 외 대담(1997), 한국영문학의 형성: 권중휘 선생을 찾아서, 《안과밖》 제2호, 영미문학연구회, 창작과비평사.

20) ‘사전’ 자체의 중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러한 이중어사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재호(2000), 영한사전의 문제점, 《영어영문학》 제46권, 제2호를 참조. 《영한사전》류를 폭넓고 꼼꼼히 검토한 한 원로 영문학자는 이렇게 일갈한다. “한영사전의 역사를 보면 독자는 많은 번역어 보충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것이다. 영한사전 편찬의 역사는 일본 《英和字典》 편찬의 역사와 비교해 보면, 영한사전은 영문학 교수들의 참여가 거의 없는 수치스런 역사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위 논문, 441쪽.

소위 순수 한국어가 빠지게 된다. 이는 당연히 고유어를 지향하는 문학어의 번역에 있어서 시적 효과를 떨어뜨리는 주범이 된다. 두 번째 crane을 ‘학(鶴)’으로만 번역하여 ‘두루미’가 빠지는 경우처럼, 실제로 쓰이는 번역어가 빠지기도 한다. 이는 당연히 번역에 있어서의 어휘 선택의 폭을 줄여 버리기에, 다양한 문맥에 대한 대응력을 떨어뜨린다. 셋째로 coeval을 ‘같은 나이의 사람, 같은 시대의 사람’으로 번역하여, ‘동갑내기, 동시대인’이라는 경제적인 전달이 저해되는 경우처럼, 번역어가 단어가 아니라 설명으로 그쳐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축자번역이라는 번역의 기본 공정을 둔화시키며, 번역문을 설명조로 만들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킨다. 넷째, face에 ‘얼굴’이나 ‘표정, 안색’ 관련 어휘를 다양하게 배치시켜 나가면서도 ‘낯’이라는 고유어를 놓치는 경우처럼, 보충해야 할 번역어들이 적지 않다. 한자어와 고유어의 분할 뿐 아니라 고유어 내부에서의 다양한 분절을 고려해야 하는 번역에서는 이 또한 난관이다. 다섯째, ‘좌골신경통(sciatic neuralgia/坐骨神經痛)’의 반대로 ‘우골신경통’이 연상된다 해도 방법이 없듯이, 무엇보다 한자 단어가 한글로만 적혀 있어 의미 전달 기능이 마비된 경우들이 허다하다.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의 대응과 다양한 원천의 지식 생산의 필요성을 생각하는 한, 여전히 번역은 한국 문화의 중요한 사명 혹은 국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중역적’ 상황이 여전히 진행형인데다, 개선의 여지도 별로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음역 중심의 ‘무(無)번역의 번역’이 만들고 있는 난경(難境)은 말할 것도 없다. 언문일치를 이상으로 삼는 문학어의 지향과 한자어로 이루어진 번역어의 세계 사이에서 작업해야 하는 번역가들의 곤경은 단순히 직역인가 중역인가²¹⁾, 번역투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초과해 있는 것이 아닐까.

21) 《일한사전》이나 《한일사전》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거의 모든 한자어가 음역되어 있는 이들 사전이 미칠 결과는 재앙적인 수준이다. 그

한국 근대어의 이와 같은 통(通)국가적 생산과 유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를 한국어의 풍부화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든, 아니면 언어 오염의 관점에서 생각하든, 이 과정 자체는 비가역적인 성격을 지닌다. 문제는 ‘한국어다운 번역’을 한국어의 순수성 옹호라는 관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한국어란 무엇이며,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보다 심화된 생각들로 이어 나가는 일이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번역이나 번역투의 문제를 악이나 오염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한국어문학자들이나 국립국어원과 같은 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이다.

국어사전 편찬과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이중어사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비판과 정책적 제언 및 관리도 필요하다. 국어 정책은 국어의 정화와 선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때때로 그것은 외국어 공부 안에서도 실천되어야 마땅하다. 국어 역시 누군가의 외국어이다. 국어와 외국어를 잘 이어 주는 일도 우리들의 책무이자 급무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중어사전을 읽는다. 아니, 고친다.

나마 식민지 시기 이래의 단어 교환이 이질감을 상쇄시켜 왔지만, 식민지 시기의 문헌을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及(および), 取締(とりしまり)’와 같은 일본식 한자어의 빈출과 그에 따른 문맥의 막힘에 당황한 적이 있을 것이다. 해방 후 한국 문학의 일본어 번역을 도모하며, 백방으로 번역자를 구하던 김소운이 번역된 문장의 결과에 대한 소회는 이랬다. 사전부터 잘못됐고, 사전 없이 번역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가 고약하다.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의 휘문출판사가 최초의 일한사전 편집을 의뢰했으나 “일한사전은 일본어를 배우는 한국인을 위한 것이니 일본 문화 수입을 돕는 것”이라면서 거절한 뒤 한일사전의 편찬을 맡아 1967년 초판을 발간한 일화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 가능하다. 김인범, 친일반민족인사(?) - 나의 아버지 김소운, 《대산문화》 2007년 가을호 참조.